제1교시 언어영역

[정답]

1. ⑤	2. ③	3. ⑤	4. ②	5. ②	6. ⑤	7. ④	8. ⑤
9. ④	10. ③	11. ②	12. ④	13. ④	14. ③	15. ①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①	21. ③	22. ②	23. ②	24. ③
25. ④	26. ③	27. ④	28. ③	29. ④	30. ⑤	31. ③	32. ③
33. ①	34. ②	35. ①	36. ③	37. ⑤	38. ⑤	39. ①	40. ⑤
41. ③	42. ⑤	43. ③	44. ⑤	45. ④	46. ④	47. ①	48. ②
49. ②	50. ②	51. ②	52. ④	53. ①	54. ①	55. ④	56. ⑤
57. ②	58. ②	59. ⑤	60. ②				

[듣기 대본]

[1]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허영심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이웃 마을의 다른 부자가 3층 누각을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누각이로구나. 특히 3층의 단장은 가히 예술이야, 예술!"

사람들의 칭찬이 마르지 않자, 이 허영심 많은 부자는 배가 아팠습니다.

'나도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나라고 멋진 누각을 못 짓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목수를 불렀습니다.

"내게도 멋진 3층 누각을 지어 주게. 특히 3층을 멋있게 지어 주게."

목수는 즉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누각 올릴 터를 잡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부자가 목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누각은 짓지 않고 왜 땅만 파는가?"

"예, 누각을 올리려면 이렇게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게는 멋진 3층 누각만 필요하지 기초 같은 것은 필요 없네. 어서 3층 누각이나 지어 주게."

부자의 어이없는 요구에 목수는 그만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 버렸답니다.

1. [출제 의도] 이야기의 교훈 추리

'부자'는 목수에게 기초는 필요 없고 3층 누각만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린다. 기초 없이 누각을 지을 수는 없으므로, 부자는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번에는 국어 수업의 한 부분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말과 글의 차이에 대해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말은 문자에 비해 사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몸짓이나 표정, 어조, 억양, 감정 등을 실어서 같은 말이라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아이, 배고파!'란 문장은 글로 써 놓으면 배가 고프다는 사실 한 가지만 드러내지만, 여기에 몸짓, 표정, 감정, 어조 등을 담아 말로 표현하면 배가 고픈 정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보세요'란 말도 감정이나 억양, 어조를 담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여보세요'로 표현해 보고, 나중에 그 친구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한 번 맞춰 볼까요?

선생님 : 자, 우선 1번 은영이부터 한 번 해 보세요.

은영 : (전화를 처음 받는 자의 목소리로) 여보세요.

선생님 : 2번 경수.

경수 :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선생님 : 다음은 3번 지혜.

지혜 : (상대에게 잘못을 따지기 위해 말하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선생님 : 4번 영훈이.

영훈 :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가게 주인을 부르는 목소리로 끝을 길게) 여보세요.

선생님 : 마지막 5번 철호.

철호 :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울 때 부르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출제 의도] 화자의 의도 추리

억양과 어조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이다. ③의 지혜는 상대에게 잘못을 따지기 위한 말투로 억양과 어조를 높여서 말했다.

[오답 피하기]

① 전화를 처음 받는 사람의 목소리
②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
④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서 가게 주인을 부르는 목소리
⑤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사람을 깨울 때 그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

[3] 이번에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의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중 국적자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사회 지도급 인사나, 그의 자녀, 유명 연예인, 또는 일부 부유층 가운데 이런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이중 국적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여 : 네, 이중 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민도 되는 셈이지요.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자녀에게 미국 국적을 얻어 주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출산하는 임산부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이중 국적의 혜택이 많기 때문이지요.

남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란 것이 개인에게만 이로운 것이지 나라에는 별로 이롭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 중 남자는 우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 연예인도 이 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죠. 또 대학 입시에서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자 일부러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지요.

여 : 네, 선생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들은 국가에 대한 병역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대학 진학시 학비를 감면 받기도 하는 등 혜택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세계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중 국적자도 우리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

지 않을까요? 선진국과 교류를 하는 데 이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첨병 역할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외국 정부에 로비스트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동포의 한국 투자에 이들이 기여하는 면도 있어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남 : 국민 정서상 이중 국적자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데 선생님께서는 좋은 점만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먼저 피할 사람들입니다. 또 불법 행위시 해외 도피도 용이하죠. 국가에 대한 의무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국적을 이용하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출제 의도] 화자의 입장 파악

여자는 이중 국적자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모두 말하고 있는 데 비해, 남자는 두 번 모두 부정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다. 특히 남자의 첫 발언에서 이중 국적자의 부정적 측면을 말했을 때 여자는 이에 동의하는 태도도 보였다. 이중 국적자를 부러워하거나 그에 대한 처우 문제를 언급한 곳은 없다.

[4]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한 설문 조사 결과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 찍어 바르고, 칠하고, 다듬고, 끼고, 쓰고,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는 끝이 없습니다. 열세 살에서 마흔세 살의 여성 2백 명을 대상으로 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가운데 8명은 외모 가꾸기를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인터뷰1(20대 여성) : "외모가 인생에서 100 가운데 80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또 얼굴이 잘 생겼으면 실수해도 봐주고… 취직도 쉽잖아요."

기자 : 일상 생활에서도 외모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외모에 신경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 준다고 답했고, 과반수 이상이 또래 여성을 보면 우선 외모부터 비교하게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외모 가꾸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53분, 거울 보는 횟수는 8.3회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마저 한국 성인의 10%가 성형 수술을 받을 정도라며 외모 지상주의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표지 기사로 다룰 정도입니다.

인터뷰2(의사) : "더 이상 고칠 부분이 없는데도 특정 부위를 고쳐달라고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기자 : 외모가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성들, 어쩌면 겉모습만 중시하는 비뚤어진 인식이 만들어 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4. [출제 의도] 화자의 태도 추리

이 뉴스에서 기자는 외모 중시와 관련해 설문 조사 결과 인용과 인터뷰를 통해 겉모습만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뉴스는 외모 중시 풍조의 문제점을 환기하고 그것을 시정해야 함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6] 이번에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방송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김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 박사(여자) : 일과 여가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인류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이 되고 여가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노동 생산성은 노동 시간과 비례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삶의 질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로 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 건강을 보호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은 근로자 자신을 위해서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특히 경제 체제가 단순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지식 산업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이 세계적인 추세죠.

사회자 : 당장 이 제도를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여기에 대해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사(남자) : 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노동보다 여가를 더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생산성의 저하와 수출 부진으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기업에 임금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사실 현재도 우리 근로자들의 휴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기존의 휴일과 휴가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주 5일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휴가 일수가 대폭 늘어나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우리 나라는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놀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결국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룩해 놓은 경제 발전을 모두 망치자는 것 아닙니까?

5. [출제 의도] 화자의 말하기 태도 비판

여자는 법정 근로 시간 단축이 세계적 추세임을 지적하여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찬성하고 있고, 남자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남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경제 발전을 망치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토론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어긋난 태도이다.

6. [출제 의도] 주장의 논리적 근거 파악

여자는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갖도록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입장에 공감한다면 주 5일 근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자가 제시하고 있는 논거와 연관지어 제시해야 한다. ⑤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④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시행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여자가 근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이다.

7. [출제 의도] 자료의 활용 방안

(다)의 자료는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만 가지고는 광고가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내용은 (라)의 자료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8. [출제 의도] 연상을 통한 내용 생성

제시된 그림은 언어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언어가 사람을 거쳐갈수록 원래의 뜻에서 점점 심하게 변형되고 있다. 원이 점차 찌그러지고 있는 것은 언어의 의미가 변형, 왜곡 등 변화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언어 사용에서 정확한 의미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9. [출제 의도] 조건에 맞는 표현

제시된 조건은 두 가지이다. 즉, 유추의 방식으로 독서의 의욕을 고취시키라는 것이다. ④에서 책을 읽는 것을 풍성한 수확을 위해 봄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것에 유추 적용한 것은 독서가 미래에 토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는 자연스럽게 독서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어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려우며 유추가 적용되지 않았다.
②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
⑤ 책을 읽는 것을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10. [출제 의도] 개요 작성 및 평가

(나)가 (가)에 비해 특히 달라진 점은 본론2에서 '쌀이 남아도는 원인'을 말한 부분과 본론3에서 '처리 방안'을 말한 부분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11. [출제 의도] 구상 및 개요의 구체화

구상이나 개요를 구체화시킨 것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본론1은 파생되는 문제를 언급하는 문단인데 보관 창고를 늘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문제 해결 방안은 본론 3에서 언급해야 한다. 또한, 보관 창고를 늘리는 것은 쌀 재고가 늘었다는 것으로 이 글의 주제와 맞지 않고 쌀 소비를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도 아니다.

12. [출제 의도] 퇴고의 적절성 평가

㉣은 접속어의 쓰임이 잘못되었다. 적절한 접속어는 '그러다 보니' 정도가 된다.

[오답 피하기]

㉠에서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한다'는 뜻이므로 여기서는 적당하지 않고 '놀림을 당한다'가 적당하다. ㉤은 논설문에 적절한 진술이다.

[13~17]
권삼윤, 「경예불이(經藝不二)」

13. [출제 의도] 세부적 정보의 확인

산업 사회에서 기업의 주된 관심은 상품의 질이었다. 하지만 지식·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양해지고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훈훈한 감동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도 이러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적 이미지를 중시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경쟁력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문화가 된 것이다.

14. [출제 의도] 글쓴이의 관점 파악

기업들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문화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이다. 이는 대중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로 결국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방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을 해야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 [출제 의도] 비유적 표현의 효과 추리

글쓴이는 문화를 '첨단 무기'에 비유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 전쟁 시대가 아니라 문화 전쟁 시대라는 것이다. 이는 전쟁에서 첨단 무기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기술이 성패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문화가 그 나라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가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6. [출제 의도] 비판의 근거 파악

㉡은 예술가들이 대중을 의식하여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대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예술도 예술 나름대로의 독자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언급해야 한다. 예술이 대중을 의식하다 보면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것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술 작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17. [출제 의도] 글쓴이의 주장 파악

글쓴이는 앞에서 문화가 산업의 여러 분야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예를 들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문화 자체의 우열은 없지만 문화에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결국 우리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8~22]
(가) 유치환, 「깃발」
(나) 서정주, 「추천사」
(다)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18. [출제 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

(가)는 깃발의 모습을 통해 이상향을 추구하고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나)는 그네를 타는 춘향을 통해 역시 인간의 이상향 추구와 좌절을 형상화하고 있다. (다)에서는 낭만적, 목가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가)~(다)는 모두 이상향을 동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 [출제 의도] 시적 화자의 심리 추리

(나)의 4연에서 그네를 타고 하늘로 향하려는 시적 화자가 서(西)로 유유히 가는 달과 달리 자신은 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20. [출제 의도] 이미지의 추리·상상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역동적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다. ㉠~㉤ 가운데 이처럼 대상의 힘찬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다. ㉠에서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는 형상을 떠올릴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③ 시각적 이미지, ④, ⑤ 청각적 이미지

1.2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바꿔 쓰기

(나)의 '나비새끼 꾀꼬리'는 (나)의 시적 화자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의 '먼 나라'에는 (다)의 시적 화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모습이나 대상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가 그곳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어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2.2 [출제 의도]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파악

'내적인 요소만을 주목한다'는 말은 작품 자체를 중심으로 비유, 상징, 이미지, 어조, 표현 방법 등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를 문학 작품에 대한 내재적 감상이라고 한다. ②에서는 작품 외적인 요소와 관련시키지 않고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내적 요소만을 주목하여 감상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⑤ 작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한 것으로 외재적 감상 중에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③ 시대 상황에 중점을 두어 감상한 것으로 외재적 감상 중에 반영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④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한 것이므로 외재적 감상 중에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23~27]
민동필, 「핵에너지와 미래의 에너지」

23.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전자는 핵 주위를 날파리처럼 돌고 있을 뿐 무게가 거의 없다. 그래서 중성자가 다른 원자 속으로 들어갈 때, 전자들이 날파리처럼 중성자에 부딪치지만, 무거운 중성자가 핵과 충돌하는 것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내용이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⑤는 2문단, ④는 3문단

24. [출제 의도] 설명 방식의 파악

글쓴이는 핵을 알사탕, 전자를 날파리, 원자의 크기를 축구 운동장, 중간자를 국물, 핵자의 궤도를 양파 껍질 등의 알기 쉬운 대상에 각각 비유하면서 어려운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25.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은 원자의 핵 에너지를 이용하려는 실용적 연구 목적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학문 연구라 할 수 있지만, ④는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실용적 목적의 학문 연구라고 할 수 없다.

26. [출제 의도] 추론의 적절성 파악

ⓒ는 핵이 커지면 양성자들 사이의 전기력이 밀어내는 힘 때문에 핵이 작은 덩어리로 분해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핵 분해는 양성자들 사이의 전기력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전자가 활동하는 축구 운동장만한 공간에 핵은 고작 알사탕만한 크기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추리할 수 있다.

② 핵은 작지만 원자 무게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리가 가능하다.

④ 감마선의 위험성을 통해 추리할 수 있다.

⑤ 중성자가 충돌하면 서로 튕겨 나가 부딪치는 중성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에서 추리할 수 있다.

27. [출제 의도] 어휘를 통한 정보의 확인

핵자는 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영민은 이를 감마선이나 원자와 혼동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고, 지현 역시 잘못된 설명임에도 그것을 핵자라고 대답하고 있다.

[28~32]
이청준, 「눈길」

28. [출제 의도] 감상의 적절성 평가

이 작품에서 '나'는 학생 시절에 형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지 못한 '어머니'를 원망했었고 아직도 '어머니'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인'이란 지칭이다. 이렇게 거리감을 갖고 있던 주인공('나')이 어머니가 아내에게 들려준 '눈길 동행의 뒷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인간적 화해에 도달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므로 ③이 가장 적절한 감상이다.

29. [출제 의도] 시각적 장면으로의 변용

어머니로부터 들은 눈길 동행 이야기 중에서 '나'는 차를 타고 떠난 이후 어머니가 홀로 돌아간 부분을 처음 들은 것이고 그 이전까지의 회상 내용은 일치하므로 '나'와 '어머니'의 기억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두 사람의 기억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줄 필요는 없다. 그냥 어머니가 회상하는 장면을 연속하여 보여 주고 중간 중간에 오버랩(O.L.) 기법을 써서 이야기하는 어머니 모습이나 잠든 척하며 그것을 듣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노모'는 '아내'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③ 클로즈업(C.U.)은 어떤 장면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영화적 기법이다. 어머니가 발자국을 보면서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므로 이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다.

⑤ 화면의 내용을 화면 밖에서 들리는 효과음으로 들려주는 것은 회상 장면을 처리하는 영화의 여러 기법 중의 하나이므로 적절하다.

30. [출제 의도] 다른 작품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시적 화자는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릇에 담긴 밥을 자식들에게 주느라고 당신께서는 찬밥을 드시고 좋은 옷은 자식들에게 먼저 입히느라 당신께서는 엷은 옷을 입으시던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기>의 시적 화자가 과거의 눈길 동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이 소설의 '나'에게 해주기에 적절한 말은 ⑤이다.

31. [출제 의도] 인물의 심리 추리

㉠은 '나'의 고교 시절에 '어머니'가 형 때문에 큰 집을 팔게 되었을 때, 잠시 귀향했다가 돌아가던 '나'와 배웅하시던 '어머니'가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새벽같이 길을 나섰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모자가 이렇게 서둘러 길을 나선 것은 자신들의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를 남들에게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32. [출제 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

'애시린'은 '슬프고 애달픈'을 뜻하는 말이므로, '죄 없이 횡액을 당해 억울한'을 뜻하는 '애꿎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33~36]
남기심, 「언어와 사고」

33. [출제 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

제시된 글에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언어', '사고'이다. 글의 앞부분에서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론인 '언어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그 이론이 철저하게 언어가 인식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를 들고 있다. 결국 이 글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밝혀주는 글이다.

34. [출제 의도] 논지 전개 방식의 파악

글의 앞부분에서는 워프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어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언어가 없으면 세계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하고 사고(思考)도 불가능하다는 이론과 그 예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언어의 상대성 이론'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언어가 철저하게 인간의 인식과 사고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언어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35 [출제 의도] 주장과 근거의 추론

<보기>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도 자신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보기>의 의미를 파악한 학생은 워프와 같은 언어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언어가 없이도 사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36 [출제 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

㉠의 '통하다'는 '무엇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③이다.

[오답 피하기]

① 말이나 문장 따위의 논리가 이상하지 아니하고 의미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어져 나가다.
② 막힘이 없이 흐르다.
④ 마음 또는 의사나 말 따위가 다른 사람과 소통되다.
⑤ 어떤 길이나 공간 따위를 거쳐서 지나가다.

[37~41]
오영진, 「맹 진사댁 경사」

37. [출제 의도] 인물의 가치관 파악

맹 진사는 신분 상승에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딸 갑분이를 김 판서 댁에 시집 보내 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런데 맹 진사가 딸이 철이 없다고 말한 것은 시집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없이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뜻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 의도] 다른 장르로 바꿔 표현하기

<보기>는 ㉮ 부분을 서술의 시점과 사건 전개의 양상, 인물의 태도와 심리 등을 고려하여 소설로 변용한 것이다.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작품 속에 개입할 수 없지만 소설은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희곡의 동작 지시문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맹 진사와 삼돌이 간에 벌어지는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서술자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⑤는 소설보다는 본래의 희곡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39. [출제 의도] 말하기 방식의 파악

맹 진사가 딸 갑분이의 혼사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한씨에게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김 판서 댁의 집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때 유모가 대화 상황에 개입하여 맹 진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호응을 해 주고 있다.

40. [출제 의도] 화자의 의도 추리

한씨는 ㉡ 부분에서 혼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처신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솔하게 지레 짐작으로 일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⑤의 속담과 관련된다.

[오답 피하기]

①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을 한다.
② 할 말은 해야 한다.
③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미에 안 맞는 음식만은 먹을 수 없다.
④ 아무리 바빠도 격식대로 해야 한다.

41. [출제 의도] 인물의 행동 추리

㉢에서 맹 진사는 아내인 한씨가 혼사를 성사시켰다는 자신의 말에 정말 그러냐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수완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일이 잘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맹 진사는 기고만장하여 상대방에게 으쓱거리면서 말하고 있다.

42. [출제 의도] 문단의 성격 파악

이 글은 (가)에서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의를 환기한 다음, (나)에서 성 차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양성성 개념이 등장했음을 소개하고 그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다)에서 양성성 개념을 주장한 진보학자들의 견해를 전통적 관점과 대비하며 소개하였고, (라)에서 양성성 개념의 속성을 명확히 규정한 후, (마)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양성성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43. [출제 의도] 글쓴이의 의도 추리

<보기>는 이 글의 글쓴이가 미래 사회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이다. <보기>와 같은 미래 사회에서는 이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성성을 지닌 사람이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44. [출제 의도] 사고 과정의 추리

(가)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자. 사람은 성 차별이 만연된 이 사회에 태어날 때부터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다고 했고, 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성(性)에 대한 편견이 사회화 과정에서 성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과 처벌, 그리고 일정한 역할 모델에 대한 모방 등을 통하여 자아 개념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생략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은 ⑤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일정한 역할 모델을 통하여 성 역할을 배운 이후의 단계이다.
②는 일정한 역할 모델을 모방하여 성 역할을 배우는 단계이다.
③과 ④는 (가)글 및 <보기>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45. [출제 의도] 세부적 정보의 확인

㉡은 양성성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므로 양성성의 특징을 설명한 답지를 찾으면 된다. (나)의 끝부분과 (다)의 끝부분을 보면 남녀의 성별에 관계 없이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벰을 비롯한 진보적 심리학자들의 견해임을 알 수 있다.

46. [출제 의도] 개념 간의 관계 파악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나타나므로 ⓐ : ⓑ의 관계는 조건과 결과의 관계이다. ④번에서 '입력'과 '출력'도 조건과 결과의 관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부분과 전체의 관계
② 의미가 서로 상반되면서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
③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
⑤ '해석'이 '이해'에 포함되는 관계

[47~51]
작자 미상, 「수궁가」

47.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

이 작품은 작품 밖의 존재인 작가가 사건 전개 상황은 물론이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도 모두 꿰뚫어 서술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 시점의 경우에는 서술자와 등장 인물의 거리가 좁혀져서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내부를 빤히 들여다보듯 서술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도 서술자가 용왕, 별주부, 토끼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48. [출제 의도] 작중 인물에 대한 이해

별 주부는 용왕의 명을 받고 육지로 나가 토끼를 꾀어 오는 임무를 완수했고, 또 토끼의 잔꾀에 빠진 용왕이, 토끼를 육지로 데리고 갔다 오라고 명하자 토끼의 말을 의심하여 간언(諫言)을 하다가 용왕의 뜻이 확고한 것을 알고는 그 명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②의 설명은 작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③ '대장 범치란 놈이 토끼 뒤에 졸졸 따라다니다가 ~ 주저앉아 술이 팍 깨어 버렸지.' 부분 참조

49. [출제 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

용왕은 죽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저항해야 정상일 토끼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자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에 속아넘어간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토끼는 순간적인 재치에 의한 임기응변으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다.

50. [출제 의도] 사건 전개 방식의 이해

㉡은 장차의 사건 진행에서 토끼가 간을 뺏기고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해 준다. 이처럼 작품 외부의 인물인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이나 사건 및 상황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암시하는 기능을 편집자적 해설이라 한다.

51. [출제 의도] 작중 상황의 파악

앞뒤의 흐름으로 보아 ⓑ는 간을 두고 왔다는 말로서, 이 말을 들은 용왕의 태도를 보면 토끼를 구슬러서 어떻게든 간을 얻고자 하는 기대와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②의 '체념하게 하는 말'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52~56]

강홍구, 「사진과 진실」

52. [출제 의도] 정보의 개괄적 확인

(마)의 내용을 보면, 사진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단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기 이전과 이후의 자세한 사정을 말해 주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한 장의 사진으로 피사체, 즉 사진에 찍히는 대상의 변화 과정을 담아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가), ③은 (마), ⑤는 (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는 (라)에서 '소련군이 시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사진에 담는 '여주인공'의 의도에 착안한다.

53. [출제 의도] 글의 내용 구조 이해

<보기>에 제시된 독자의 의문 속에는, 사진이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사진이 현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문단은 (가)뿐이고, (나)부터는 사진이 현실에 개입하게 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독자의 입장에서는 (가)를 읽고 나서 <보기>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54. [출제 의도] 미루어 알기

'이러한'은, (나)에서 사진이 본질적으로 사건에 개입한다는 점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 (다)에서 현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찍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구도를 잡아 사진을 찍는 '번지'의 태도를 통해 사진의 조작성을 엿볼 수 있다.

55. [출제 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마)의 내용을 풀이하자면, 사진은 본질적으로 서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도 붙지 않은 어떤 한 장의 사진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한 소감과 해석이 보는 사람에 따라 분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진의 특성을 정리하여 서술해 놓은 것이 ㉡이다. 그런데, ④의 반응은 사진의 서술성 부족으로 인하여 그 사진이 어떤 상황을 찍은 사진인지 몰라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사진을 자주 보게 될 때 그 느낌이 무디어지는 경우, 즉 사진의 중독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반응이다.

[오답 피하기]

①은 '똑 같은 사진에 전혀 상반되는 설명이 붙을 수도 있는' 사진의 예와 그에 대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②, ③, ⑤는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진이 있게 되었는지, 그 속에 어떤 인과 관계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사진의 예와 그에 대한 감상으로 볼 수 있다.

56. [출제 의도] 적용 사례의 적절성 판단

⑤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단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노리고 자신의 배경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유력한 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진을 찍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만나게 되는 주변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57~60]

(가)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에서

(나)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에서

57. [출제 의도] 화자의 태도 추리

(가)는 4계절에 따라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정경과 어부 생활의 흥취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역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작품이다. 모두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감탄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58. [출제 의도] 표현 효과의 추리 및 적용

'어부사시사'의 후렴구는 노 젓는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전해 줌으로써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어부 생활의 흥취를 돋우는 역할을 한다. ② 역시 아름다운 어촌에서 낚시질을 하며 즐기는 시적 화자의 흥이 잘 드러나므로, '어부사시사'의 후렴구와 잘 어울린다. 실제로 ②는 '어부사시사'의 <추사(秋詞) 4>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자연에 동화된 무욕의 경지가 잘 드러나는 월산대군의 시조이다. 고요하고 정결한 분위기가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거리가 있다.

③ 비오는 날의 외로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므로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관련이 없다.

④ 자연을 즐기면서도 임금에 대한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로,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거리가 멀다.

⑤ 이현보의 '어부가'로 나라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부 생활의 흥취와는 거리가 멀다.

59. [출제 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가)에서는 고기를 많이 잡고 기뻐하는 어부의 모습을 노래했다기보다는 유유자적(悠悠自適)하고 풍류적인 어부 생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또 (가)의 화자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⑤와 같이 고기를 많이 잡고 기뻐하는 어부의 모습은 내용상 맞지 않는다.

60. [출제 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

㉡은 '백구'와 화자가 한몸이 된 물아일체의 경지가 잘 드러난다.

[오답 피하기]

① 화자를 '벅구기'로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벅구기'와 '푸른 버들숲'을 통하여 아름다운 봄 경치를 노래했다.

③ 대구를 통해 앞뒤로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다. 이치에 어긋나게 표현하는 역설과는 무관하다.

④ 물의 흐름이 잘 느껴지므로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

⑤ 아쉬움의 정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의 정서가 드러난다.